

포항국제불꽃축제 7월 28일~31일

경북

7월의 포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영일만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 불빛의 향연이 그것이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는 포항 국제불꽃축제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불빛무지개'를 주제로 성대하게 펼쳐진다. 지난 2004년 포항시와 포스코가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한 포항국제불꽃축제는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한층 더 화려한 불꽃과 다양한 불거리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여름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포항시축제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축제의 시작과 함께 도입된 국가축제 평가기준에 따라 연례인 초청과 과도한 의전행사를 축소했다. '불꽃 중심의 축제에서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대전환, 전체적인 콘텐츠를 대폭 정비했다. 또 거리공연 및 퍼포먼스를 강화해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참여해 체험하며 즐기는 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축제를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불빛버스킹'을 처음 도입해 길거리 공연과 퍼포먼스를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포항을 상징하는 '빛'을 소재로 한 '뮤지컬 오브 라이트'를 새로운 콘텐츠로 채택했다. 불꽃소를 통한 '불'과 '라이트' 소를 통한 '빛'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고, 행사장 일대를 활하게 밝혀 예년에 비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거리공연·퍼포먼스·체험 강화 이탈리아·대만팀 국제 불꽃쇼 '빛과 음악' DJ 레ιβ 파티 등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축제 첫날인 28일 포항 불빛버스킹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다음날에는 '불빛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또 30일로 예정된 메인행사 '국제불꽃쇼'는 세계적인 불꽃대회에서 수차례 상위권 수상을 하며 국제적인 수준의 연화연출 능력을 보유한 이탈리아 팀과 대만 팀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계 최고의 불꽃쇼를 연출하는 국내의 '한화'팀도 그동안 소개하지 않은 특수 불꽃쇼를 이번 포항국제불꽃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불꽃쇼'는 기존 뮤지컬 불꽃쇼에 영상과 레이저, 특수조명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와 퍼포먼스를 가미한 새로운 트렌드의 멀티퍼포밍 불꽃쇼로 1시간 동안 약 10만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릴 것으로 알려져 대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일 형산강체육공원에서는 포스코 경관조명쇼와 불빛시네마 등의 행사가 열린다. 불꽃축제를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매일 오후 9시부터 10분간 전문 불꽃디자이너가 펼치는 '데일리 뮤직불꽃쇼'가 펼쳐진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DJ 레ιβ 파티'는 빔조명과 레이저를 활용한 입체적인 불꽃쇼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1000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참가하는 '뽕! 뽕! 포항 물총대전'과 함께 포항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인 '월월이청정'을 민요가락이 아닌 일렉트릭 댄스음악으로 재구성해 모두가 함께 아우러지는 화합의 큰 마당을 연출할 예정이다.

장규열 포항시축제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불꽃연출의 다양성을 높여 다른 도시와의 차별을 분명히 했다"며 "빛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발굴과 거리공연 및 퍼포먼스를 강화해 함께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관객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지밀히 수립해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축제, 유쾌한 축제를 만들 것"도 다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이상원 매일신문 기자 seagull@msnet.co.kr



화려한 불꽃 퍼레이드가 포항의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명소·밤바다 투어... 버스로, 버스로

시티투어 버스 운행... 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호미곶 등 코스

포항에 들른다면 포항의 명소와 유명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도시순환형 정기 시티투어와 밤바다 투어를 꼭 체험해 볼 것을 추천한다.

포항시는 지역 내 주요 관광코스과 산업체협, 죽도시장 등을 돌아오는 순환형 정기시티투어를 마련, 관광객들이 스스로 관광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일만과 포스코 야경을 둘러볼 수 있는 밤바다 투어를 마련했다.

순환형 정기시티투어 버스는 포항시 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포항시청과 포항역을 둘러 관광객을 태운 뒤 영일대해수욕장~죽도

시장~포항운하~포스코역사관~구룡포항~호미곶~호미곶돌레길을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됐다. 이 투어는 매일 오전 9시 30분 첫 출발한 뒤 1시간 40분 가격으로 5회 출발하며, 전체 코스 순환시간은 약 2시간 20분이다. 특히 테마투어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관광지에서 내려 충분한 관광을 즐긴 뒤 다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돼 있어 선택형 관광이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1만2000원, 단체 1만원, 청소년 8000원이며, 정기순환투어 승차권으로 당일 밤바다투어를 할 경우에는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밤바다 투어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출

발하는 2개의 코스다. 1코스는 시외터미널~포항운하관~송도해수욕장~여객선터미널~영일대해수욕장~죽도어시장~시외터미널이며, 2코스는 영일대해수욕장~여객선터미널~죽도어시장~포항운하관~송도해수욕장~영일대해수욕장이다.

밤바다 투어는 매일 오후 7시 시외터미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출발하며, 각 투어대상자마다 10분에서 30분간 관광시간이 주어진다. 전체 투어시간은 2시간 40분이며, 요금은 성인 8000원, 단체 6000원, 청소년 등 5000원이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테마투어코스도 현행대로 운행된다. 각 테마별 운행시간은 최소 3시간40분(청소년 보존체험)에서 8시간 20분까지다. 요금은 성인 1만원, 단체 8000원, 청소년 등 6000원이다. 문의: 가람관광여행사 054)281~9114.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이상원 매일신문 기자 seagull@msnet.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